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 8. 28.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요약]

정책 목표

-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를 목표로 청년취업 순 주기(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을 통해 총력대응**
- * 청년 고용률% <전년비 %p> : ('22)46.6<24> ('23)46.5<△0.1> ('24)46.1<△0.4> ('25)45.0<△1.1> ('26.上)43.6<△1.5>

핵심 과제

- 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30만명, ~'30)
- ②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 (30만개, ~'30)
- ③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월 (최대)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 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활용
- ④ 한번 **훈련사업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교육훈련 후 취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커리어뱅크), ^{경력이직 관련} 대·중·소 상생기반 확충 등
- ⑤ **훈련사업 참여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Win-Win**(인센티브)
* 수도권에서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지방에서는 대기업까지 지원
- ⑥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일상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디딤] Build-Up

- ① **전문인력 양성**(30만+α, ~'30)
 - ▶ 3대 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 ▶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 프로그램 수요자 후속관리
- ②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 ▶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 ▶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 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 ▶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③ **매칭·입직·채용 지원**
 -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요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 ▶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 ▶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 ④ **일자리창업 창출**(30만개 이상 ~'30)
 - ▶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 ▶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현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 ▶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도약] Leap-Up

- ⑤ **경력사다리 지원**
 - ▶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 ▶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 ▶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 ▶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 ⑥ **근로여건 개선**
 - ▶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 ▶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통한 문화여건 개선
 - ▶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 ▶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1

[디딤^{Build-Up}] 취업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① (전문인력 양성) ^{3대}메가프로젝트, 첨단·청년선타 부문 30만명(~'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① (직업훈련) KDT(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집중지원(2만명, '27)

② (고급인력) 특성화 대학원·대학 중심 석박사 등 전문인재 양성(1.2만명)

③ (실무인력) 직업계고·폴리텍 등 현장 실무인력 양성(0.7만명)

④ (청년뉴딜) K-뉴딜 아카데미^{대기업}, 부트캠프^{대학} 등 확대(7.5만명)

※ 수요인력에 네트워킹 및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뉴딜 alumni) 신설

② (구직·회복지원)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60→65만원), 청년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연결) 특화·구체화 운영 등

○ (고용24 고도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사업 원스톱 검색·신청 서비스 지원* 및 AI 고용센터 구축**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를 활용하여 구직자를 진단·분류하고 구직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일상회복 】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확대(5.8~6.7만명)

* 정책창구 단일화(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통합)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상담 제공, 청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도전유형 및 성장유형 등) 마련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0.6만명)

③ (매칭·입직·채용)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

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 신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청년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
(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도 지원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③ (입직·채용 인센티브 강화) 청년입·재직 및 창업 촉진, 기업채용유인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 → 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를 감면(산기은, 신보)

④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기업이 AI 역량을 보유한 청년을 채용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④ (일자리·창업 창출)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①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신산업)0.4만명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농업)0.7 (국토)0.4 (금융)0.2 등

② (공공)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된 공공일자리 제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2.0만명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 공공기관 인턴 확대 및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창업지원 등 병행

③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5] (경력사다리) 「커리어 점프업(Jump-up)」 정책 패키지 지원

- ① (커리어 멘토링)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향후 진로·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 ② (재직자교육)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 ③ (가칭 커리어뱅크) 경력·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추가
- ④ (대·중소 상생) 청년 숙련인력의 중소 → 대기업 경력이직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에 이·전직 관련 항목 추가 → 경력이직에 대한 기금 사용 유도

[6] (근로여건 개선) 재직자 자산형성 + 근무·정주여건 조성 + 인증제 신설

- ① (자산형성) 지방중소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12→25%)
 -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상품의 지급비율 상향(12→15%)
 -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 ②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문화시설을 갖춘 브랜드산단을 지속 확대하고, 노후공장 리뉴얼을 통한 안전근로 여건조성도 지속 추진*
 - * 브랜드산단(개소): ('26)3 ('27^{목표})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개소×사): ('26)3×20 ('27^{목표})4×20
 - 지방근로 청년의 문화접근성 제고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대폭 확대
 - * (대상) ^{현행}만19~20세 → ^{확대}만19~34세 (희수) ^{현행}생애회 → ^{확대}매년 (분야) ^{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체육 포함
- ③ (행복한 일터 인증제) 청년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26.12), 인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27)
- ④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지방중소 취업 청년의 세후소득 증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90%) 기간 확대*
 -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 ^{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기본방향	3
III . 세부과제	4
IV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I. 추진배경 : 최근 청년고용 상황

◇ 청년고용 여건의 어려움 지속, 쉬었음도 높은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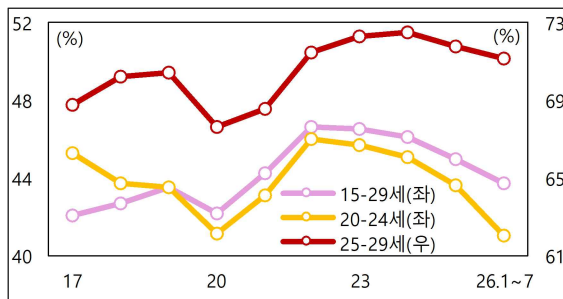
-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면서 청년고용 부진 심화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쉬었음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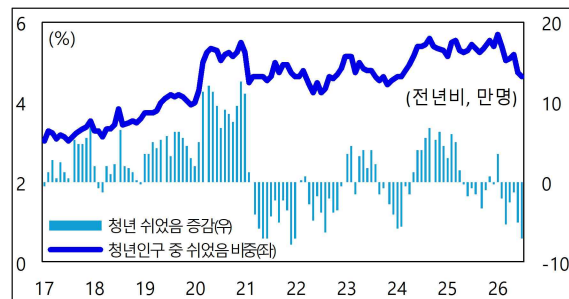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 <전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청년 쉬었음 비중(계절조정) 및 증감(전년비, 원계열)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現 청년세대의 입직·재직의 어려움: 경력·여건·시점의 3대 불균형

- (경력) 기업의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대 경향으로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 갖출 것을 요구 → 청년 개인에게 훈련부담이 귀착

*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선택(한은, '25.2월)

- (여건) 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양질의 일자리에 바로 취업하기 위한 구직노력·시간 확대**

* '24년 大-中企 20대 평균임금 격차(만원, 데이터처, '26.2월) : (大)351 (中企)230 (차이)121

** 대졸자 졸업소요기간(개월) : ('10)48.0→('26)53.7 / 첫취업 소요기간(개월): ('10)9.5→('26)11.2

-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임금·근로여건 불만족* 및 불투명한 성장·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탈

* 첫 직장 그만둔 이유('26년, %) : (근로여건 불만족)44.4 (계약종료)18.0 (개인사유)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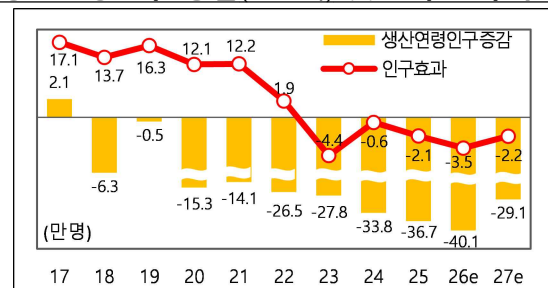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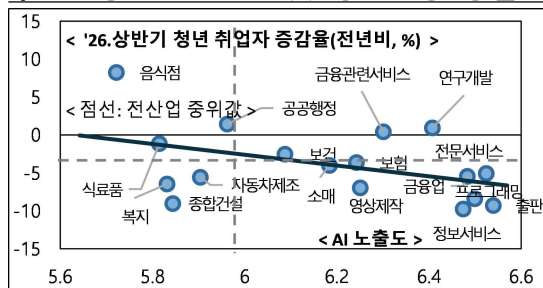
- (시점) 現 25~29세는 팬데믹으로 기업의 채용여력이 둔화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 → 경력공백 장기화 등 상흔 고착화*

* 25~29세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로, 코로나 이후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기업채용 기피, 구직 효능감 상실 등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상흔이 고착화(직능원, '26.2월)

◇ 산업·인구의 복합전환 본격화 → 위기이자 失機해서는 안될 기회

- 생성형 AI 도입·확산 이후 AI 高노출 업종 중심으로 청년 채용이 감소하는 모습 → AI의 저연차 직무대체 현실화 우려
 - * '22.7월~'25.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98.6%)가 AI 노출도가 높은(상위50%) 업종에서 발생(한은, '25.10월)
- 반면 AI발 신산업(로봇·자율주행 등) 확산에 따른 新 직무수요, 향후 본격화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
 - * AI는 '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1.7억개 창출, 9,200만개 대체 → 7,800만개 순증 전망(WEF, '25년)
- 한편, 저출생 등으로 청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속 감소 →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
 - * 생산연령인구(전년비, 만명 경향조사 기준) : ('22)△26.5 ('23)△27.8 ('24)△33.8 ('25)△36.7 ('26)△40.1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인구효과, 만명) : ('22)1.9 ('23)△4.4 ('24)△0.6 ('25)△2.1 ('26)△3.5

주요업종 AI 노출도 및 청년고용 증감을 생산연령인구 증감(전년비) 및 인구효과 추이



-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패 시,
 - 청년은 신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 → 경력·소득·자산·성장 기회 제약
 - 기업은 핵심인재 확보 애로에 따른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
 - 국가는 인적자본·생산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 ① (디딤^{Build-Up}) 신산업 인력수요 대응 위해 대규모 첨단훈련을 통해 청년 미래인재 양성하고 원활한 구직 및 노동시장 진입 여건 조성
- ② (이음^{Match-Up}) 입직을 망설이게 하는 임금·근로여건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매칭으로 뒷받침
- ③ (도약^{Leap-Up}) 입직 이후에도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역량 향상·경력개발 등 미래성장 지원

II. 기본 방향

정책 목표

-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를 목표로**
청년취업 수 주기(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 고용률(% <전년비 %p>) : ('22)46.6^{<24>} ('23)46.5^{<△0.1>} ('24)46.1^{<△0.4>} ('25)45.0^{<△1.1>} ('26.上)43.6^{<△1.5>}

핵심 과제

- 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30만명, ~'30)
- ②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 (30만개, ~'30)
- ③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월 (최대)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월^{최대}75만원), 청년미래적금(+월^{최대}20만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월1만원 수준) 등 활용
- ④ 한번 **훈련사업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교육훈련 후 취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커리어뱅크), ^{경력이직 관련} 대·중·소 상생기반 확충 등
- ⑤ **훈련사업 참여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Win-Win**(인센티브)
* 수도권에서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지방에서는 대기업까지 지원
- ⑥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일상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디딤] Build-Up

- ① **전문인력 양성**(30만+α,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 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 ②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 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③ **매칭·입직·채용 지원**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 ④ **일자리창업 창출**(30만개 이상, ~'30)
 ▶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 (공공) 생산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도약] Leap-Up

- ⑤ **경력사다리 지원**
 ▶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 ⑥ **근로여건 개선**
 ▶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통한 문화여건 개선
 ▶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Ⅲ. 세부과제

1 [디딤^{Build-Up}] 취업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청년들에게 첨단·선호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 + 첫 취업도전 청년에게는 특화된 구직 서비스, 취약청년에게는 회복·재도전 지원

1 [인력양성]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① (직업훈련) AI 등 첨단산업 직업능력 개발 집중지원(2만명, '27)

* KDT AI 캠퍼스^{노동부} 등

② (고급인력)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대학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심으로 석박사 등 고급인재 육성(1.2만명)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산업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교육부}, 메가프로젝트 선도인재 양성^{과기정통부} 등

③ (실무인력) 직업계고·폴리텍 등 첨단산업 맞춤형 실무과정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 양성(0.7만명)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노동부}, 협약형 특성화고^{교육부} 등

④ (청년뉴딜) K-뉴딜 아카데미(대기업), 부트캠프(대학) 등 첨단 산업·청년선호 분야의 훈련사업 확대(7.5만명) **Box1**

*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 등

【 후속 관리 】

○ (가칭^{청년} 뉴딜 alumni) 인력양성 프로그램(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을 실제 구직까지 후속 연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신설^{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 청년간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소통·활동 및 정보제공 등 구직 지원*

* (소통활동) 멘토링 취업특강 학습동아리 등 (정보제공) 채용정보 우선제공, 채용행사 동행·면접지원 등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 활용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및 부트캠프 세부 내용

□ **청년뉴딜 추진방안**(4.29 발표)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인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확대(7.5만명)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26 1만명 → '27 5만명(+4만명)

▪ (훈련내용)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50% 이상) +
자율기획 프로그램*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지원내용) 기업훈련비·청년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기업 훈련비(1인당 시간단가) : 수도권 14,500원, 비수도권 24,500원

** 청년 참여수당(월) :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 (**부트캠프**) 대학·기업의 단기집중 교육과정으로

대학 재학생(첨단산업) 및 비재학생(청년도약)에게 제공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내용	▶ 대학기업이 재학생에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 대학·기업이 비재학생 청년에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분야	▶ 첨단산업 8개 분야 *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 첨단인재형(첨단산업 8개 분야) + 실전인재형(인문·사회·예체능 등)
지원대상	▶ '26 0.9만명 → '27 1.5만명	▶ '26 0.4만명 → '27 1만명

2 [구직·회복 지원]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K-Youth Guarantee})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노동부}
 - (지원범위 확대)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준비 중 청년 증가에 대응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수준 인상) 구직청년이 생계 부담없이 안정적인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인상(月 60→65만원)
 - (지원내용 특화)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를 특화·구체화해 운영
- * ① (진로탐색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 직무진단·진로상담 제공
- ② (일경험·훈련 :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등 연계
- ③ (취업연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중 청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제공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I 유형	요건심사형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청년			선발형 비경활				
II유형	합계	특정계층		II유형	특정계층		II유형 청년		
		증장년							
		청년							

- (고용24 고도화)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노동부}
 - (청년 원스톱 지원)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
 - (AI 고용센터) AI를 활용하여 구직자·기업을 진단·분류*하고, 구직자·기업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 (자기주도형) AI가 추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해 자율적인 취업채용 활동 수행 (집중지원형) 상담사가 전담 마크하며 경력설계 및 취업알선 채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AI 구직자·기업 진단	AI가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상황·목표 등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식을 자동 추천·연계
AI 취업지원사업 추천	공공·민간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안내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AI 지원금 자동화	AI가 신청서·첨부서류를 자동분석하고, 자격요건·지급 기준 등을 검증하여 지원금·급여 신청·심사·지급까지 자동화

【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5.8→6.7만명)^{노동부}
 - (상담) 정책창구 단일화*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 상담 제공
 - *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과 청년성장프로젝트(미취업청년 대상)로 분리 (개선)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
 - (지원)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참여기회 확대**
 - * (도전 유형)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의욕 고취 위한 참여수당 등 제공 (성장 유형)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 비수도권 지방비 매칭비율을 현행 20 → 개편 10%로 축소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가족돌봄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0.6만명)^{복지부}
 - 시도 청년미래센터(17개)를 중심으로 시군구 내 역량있는 기관을 지원하여, 청년의 특성·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초적 회복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공동식사 등 또래모임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다른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습관과 대인관계 회복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청년인문교실(지역 청년에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 지원) 및 문화로치유지원 (청년 등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정서회복 지원 병행^{문체부}

- ◆ 훈련수로 청년의 첫 일자리·경력 형성 위한 매칭 플랫폼 신설,
채용·입직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일자리(민간·공공)·창업 창출

3 [매칭·입직·채용]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 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 신설^{노동부} **Box2**
 - 준비정도·역량·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활동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카페 등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 ② (재정 인센티브)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 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산업부}, 유니콘 브릿지^{중기부} 등
- ③ (세제지원 강화) 청년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창업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창업후 5년) 강화^{재경부}

[현행 감면율]					[개정 감면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청년	50%	75%	100%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 ④ (정책금융 확대)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추진^{금융위}
 - 청년이 창업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보증료율*을 적용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0.2조원 규모) 상품 신설
 - * 금리 우대(최대 △1.5%p), 보증료율 우대(고정 0.3%^{3억원}↓ 또는 △0.7%p 차감^{3억원}↑) 등
 - 산은·기은·신보 등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 (산은) 고용확대지원 특별자금(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금리 최대 △0.7%p)
- (기은)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 금리 최대 △1.3%p)
- (신보) 고용촉진 창업보증(고용 증가·유지 기업 등, 보증료율 △0.3%p)

【 Box 2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세부 운영계획

-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 **(참여대상)**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후 미취업자 대상 우선 지원
 - ※ 시설 및 커뮤니티는 별도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주요활동)** ①프로젝트 ②멘토링·커뮤니티 ③도전·미션 등 ④창업·창직 ⑤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①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혁신 등 중기부·산업부 사업의 기업 수요 매칭, 공공기관·지방정부의 현안문제 프로젝트 위탁 수행
- ② **(멘토링·커뮤니티)** 취업 선배, 기업현직자 등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 통해 청년의 교류·성장 및 경로탐색 활동 지원
- ③ **(도전·미션 등)** 가상 회사체험(역할분담·협업), 공모전·해커톤(아이디어·과제해결), 기업매칭, 직무강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 ④ **(창업·창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배창업자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사업화 등 연계하여 창업자로 육성
- ⑤ **(일자리 매칭)** 구직 의사와 역량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 공공일자리 등으로 바로 취업 연계

【 운영방식 예시 】

인력공급(청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인력수요(기업)	
청년뉴딜 수료자	인력	멘토링	교육훈련·인턴	일감	지역 TP·협회
미취업 DB	→			←	지역기업
스스로 가입	인력	커리어뱅크	일거리매칭	일감	창조경제센터

※ (예)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 제출(TP·협회 등) → 플레이그라운드 참여인재 중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운영기간)** 플레이그라운드 참여기간 6개월*,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참여기간내 조기 취·창업 후 청년이 원하면 관리 종료

*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상 11.2개월(26.5월 경찰청 청년층 부가조사)

- **(운영공간)** 청년카페·센터 등(시그니처 3~5개소)을 리모델링·고급화하여 인력과 일감을 매치하는 플랫폼 거점(플레이그라운드 센터)으로 운영

* 청년도전·성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청년 취업준비 네트워크 허브로 운영

- **(전문인력)** 일자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 코디네이터 배치

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청년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노동부}

- (기업지원금)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이 채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 신설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
(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도 지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기존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 규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내용]

구분		2026년		2027년(안)	
기업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u>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u>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u>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대기업</u> (신설)
	지원 수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월)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월) <u>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30만원/월)</u>	

구분		2026년		2027년(안)	
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해당기업 취업 청년	<u>해당기업 취업 청년</u> (신설)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기업 취업 청년 제외)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u>2년간 최대 1,800만원</u> * 수도권 480만원, <u>우대지역(수도권 외) 1,440 ~ 1,800만원</u>	

⑥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기업이 AI 역량을 보유한 청년을 채용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4 [일자리 · 창업 창출]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① **(민간일자리)** 민간에서 능력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10만개**, ~'30)

▪ (신산업) AI · 신소재 · 바이오 등 주력·첨단산업 분야의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추후 채용연계 지원(**0.4만개**, '27)

* AX미래모빌리티나노융합기술특수탄소강자율주행핵심기술 인력^{산업부},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노동부} 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제조 등 고부가·혁신부문 일자리, 연구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제공(**0.5만개**)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중기부},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산업부} 등

▪ (과학기술)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공계 청년인력을 위한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창업을 독려(**0.2만개**)^{과기정통부}

* 과기원·출연연·연구중심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청년 테크창업 등

▪ (문화) 전통문화 창업을 지원하고 공예·게임·관광·스포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채용연계 인턴십 확대(**0.2만개**)^{문화부}

*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공예·문화예술·체육 인턴십 등

▪ (국토)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미래 청년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기업 육성(**0.4만개**)^{국토부}

* 메가프로젝트 대응 기능인력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등

▪ (농업) 창농준비·성장지원을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K푸드 분야 일자리 진입을 위한 인턴십·후속채용 지원(**0.7만개**)^{농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농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등

▪ (금융) 핀테크 취창업 및 채용 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0.2만개**)^{금융위}

* 핀테크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개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확대(^{기존}연1회 서울 → ^{확대}반기1회 서울·지방)

② (공공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일하기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 가치창출형 일자리 및 공공기관 인턴십 등 창출(10만개, ~'30)

※ 각 부처가 참여실적 관리, 취업 연계 등을 하는 내용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적 공공일자리) 국세·지방세 체납관리 및 노동·국토 교통 등 공공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자리 확대(2.0만개, '27)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국세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행안부}, 고속도로 체납단속^{국토부} 등

- (사회연대경제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해 청년이 사회연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0.3만개)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노동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행안부} 등

- (교육·연구)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및 AI·디지털 등 첨단분야 교육 등에 AI 역량을 보유한 청년을 채용(3.0만개)

* 기초학력 강사 채용^{교육부}, 디지털튜터^{교육부}, 중소기업 AI 청년코치^{노동부} 등

- (복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의 일경험·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0.3만개)^{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등

- (문화·해외진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에 정부·공공기관이 청년을 적극 채용(0.3만개)^{문화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문학관 청년인턴십, 태권도 전문인턴,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AI 역량 제고 및 AI 인력 확충, 창업 지원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2.5만개+a)^{재경부}

- ▶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지속 확대하고 AI 실무인재 양성*, 청년 AI 서포터즈 운영** 등 직무교육·경험 제공 확대

* 先 AI 교육 + 後 실무 투입 체계 등의 AI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혁신 프로젝트 TOP 20 기관 등 22개 기관, 총 66명 위촉·운영 중(7.23~10.22)

- ▶ 기관별 AI 업무 발굴 및 관련 전담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증원 소요를 검토하고 신속 채용 지원

* 기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AI 체계 구축, AI 접목 분야 발굴, 기관 역량강화 등

- ▶ 공공기관 AI 과제 개방 및 대국민 공모 실시 + 우수과제 창업 연계 시 발주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 ①일반/기술, 로컬 등 창업인재 발굴 및 창업활동자금 지원, ②창업 오디션 중심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 ③창업가 도전 분야에 따른 체계적 성장경로 연결 및 재도전 생태계 강화 등

** (현행) KAIST만 보유 → (개편) 4대 과기원으로 확대

- ◆ 취업 이후 청년의 경력개발·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정주여건 개선 노력 병행

5 [경력사다리] 경력성장 위한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

- ① (커리어 멘토링)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향후 진로·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노동부}

- 취업선배,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직장적응·경력발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등 제공

* 입직 초기 조직문화 적응,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및 경력설계 등

- ② (재직자 교육)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노동부·산업부}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훈련	▪ AI 분야 중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S-OJT)을 설계하고 지식·기술 등을 재직자에 전수하는 직업훈련 대상기업 확대 * 지원대상 기업(개) : ('26)2,900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기업은 청년 先채용 후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학교는 이론교육(Off-JT) 후 자격 취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명) : ('26)28,700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AI·ESG·글로벌비즈니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기업 수준의 인재로 키우는 핵심 아카데미 대상 확대 * 지원대상(명) : ('26)700

- ③ (^{가칭}커리어뱅크) 경력·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노동부} **Box3**

- ^{현행}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연계 정보 10종 추가

- ④ (대중소 상생) 청년 숙련인력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중기부}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재단 예규)'에 기금 용도로 이·전직 항목을 추가하고, 대기업 대상 교육·홍보 추진

【 Box 3 】 **가칭** 커리어뱅크 세부 내용

□ **다양한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경력)을 **저축·통합 관리**하고,
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

○ **(현행 직무능력은행제)** 고용보험이력, 국가기술자격 등 총 19종*
정보 연계중

* 국가기술자격,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직업훈련과정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개인사업자등록정보 등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 취업 및 자기개발에 활용, (기업) 능력중심채용·인사배치·교육 등에 활용

○ **(개편방안)** 청년 수요 등을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27년~)

연번	연계 항목	소관부처·기관	세부 연계정보
1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프리랜서 경력 정보
2	취업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3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	다수 부처·기관	청년 K-뉴딜 아카데미 등 사업참여 이력
4	취업지원 대학 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육부	학교, 학과, 수학기간, 졸업연도 등 *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 활용
5	취업지원 공인어학성적	YBM, 한국지텔프, 서울대 등	TOEIC, OPIc, G-TELP, TOSEL, TEPS 등 * TOEIC은 고용24 연계 추진 중, 이외 시험은 협의 필요
6	취업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7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TeenUp) 등급
8	취업지원 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	국방부, 병무청	군사특기, 복무기간 등
9	취업지원 공인민간자격	다수 부처·기관	활용성 높고 자체시스템 보유한 자격 종목 위주 검토·연계 * 관계부처 협의 필요
10	취업지원 국가전문자격		

6 [근로여건 개선] 재직자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 개선

① (자산형성) 지방중소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12→25%)^{금용위}

-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상품의 지급비율 상향(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6%
		일반소득자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재직	총급여 6,000만원 이하		150% 이하	12→상향 15%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소득기준과 동일		신설 25%	

②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청년의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확충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추진

- (문화선도산단) 문화시설을 갖춘 브랜드산단*을 지속 조성하고, 노후공장 리뉴얼**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산업부}

* 브랜드산단(개소): ('26)3 ('27^{목표})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개소×사): ('26)3×20 ('27^{목표})4×2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근로 청년 등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횟수·분야 등 확대(지원금액 수도권10만원, 비수도권15만원)^{문체부}

* (대상) 현행만19~20세 → 확대만19~34세 (횟수) 현행생애1회 → 확대매년
(분야) 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체육 포함

③ (행복한 일터 인증제)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노동부}

* ①(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②(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26.12월)

- 인증제 시행('27)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재경부}

④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지방중소 취업 청년의 세후소득 증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90%) 기간 확대*^{재경부}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IV.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디딤^{Build-Up}] 취업이전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1] 인력양성		
① 직업훈련 - 2만명 양성	노동부	'27
② 고급인력 - 1.2만명 양성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27
③ 실무인력 - 0.7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④ 청년뉴딜 - 7.5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⑤ 뉴딜 alumni 신설(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운영)	노동부	'27
[2] 구직·회복지원		
[구직 지원]		
①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노동부	'27
② 고용24 고도화	노동부	'27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① 청년도전성장지원 통합	노동부	'27
②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복지부	'27
2. [이음^{Match-Up}] 취업단계 :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3] 매칭·입직·채용		
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노동부	'27
② 기업 재정 인센티브		
▪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26.下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27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27
③ 청년 창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27
④ 정책금융 확대		
▪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상품 신설	금융위	'27
▪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금융위	'27
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노동부	'27
⑥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신설	노동부	'27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4] 일자리·창업 창출		
① 민간 일자리		
■ 신산업 - 0.4만개	산업부 노동부	'27
■ 중소·중견기업 - 0.5만개	중기부 산업부	'27
■ 과학기술 - 0.2만개	과기정통부	'27
■ 문화 - 0.2만개	문체부	'27
■ 국토 - 0.4만개	국토부	'27
■ 농업 - 0.7만개	농식품부	'27
■ 금융 - 0.2만개	금융위	'27
② 공공 일자리		
■ 생산적 공공일자리 - 2.0만개	국세청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27
■ 사회연대경제형 - 0.3만개	노동부 행안부	'27
■ 교육·연구 - 3.0만개	교육부 노동부	'27
■ 복지 - 0.3만개	복지부	'27
■ 문화·해외진출 - 0.3만개	문체부	'27
■ 공공기관 인턴 등 - 2.5만개+α	재경부	'27
③ 창업 - 10만개+α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등	~'30
3. [도약^{Leap-Up}] 취업이후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5] 경력사다리		
① 커리어 멘토링	노동부	'27
② 재직자 교육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노동부	'27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확대	산업부	'27
③ 직무능력은행제를 ^{가칭} 커리어뱅크로 개편·확대	노동부	'27
④ 상생협력기금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26.下
[6] 근로여건 개선		
①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27
②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문화선도산단 확충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27
■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체부	'27.上
③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노동부	'27
■ 관련 세제지원 신설	재경부	'27~'28
④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재경부	'27